

## | 서울남산RC, 캔 파운데이션 썸머 아트버스 캠프 후원 및 참여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서상준)의 300만원 후원으로 지난 8월 9일(수)~10일(목) 양 2일간 캔파운데이션 아트버스 캠프가 진행되었다.

8월 9일에는 문화오지 지역 전남 곡성군 석곡 초등학교에서 신제현 작가가 28명의 학생과 함께 <뉴미디어 악기연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상의 물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태도가 예술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주어진 학교 공간의 의미를 전복하는 악기 연주 퍼포먼스를 펼쳤다.

8월 10일에는 전남 보성군 동산교회에서 민세희 작가가 참여 학생 20명과 <손으로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 개인 및 학생 주변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창작으로 시각화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술 환경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이해했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남산RC이 후원하는 송실남산 로타랙트클럽 회원이자 현 3650지구 로타랙트 대표인 김재정 군을 비롯, 송실남산 로타랙트클럽 송명현 회장, 김민지, 오재현 회원 등 4명이 아트캠프 봉사자로 같이 참여했다.



## | 서울남산RC,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민) 주최, 부여군 저소득층 음악학생들을 위한 여름음악캠프 후원 및 장학금 전달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서상준)이 후원하는 <2017 제20회 KCO 여름음악캠프>가 지난 8월 6일(일)부터 11일(토)까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됐다.

본 캠프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구 서울바로크합주단, 음악감독 김민)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서 20주년을 맞이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KCO 여름음악캠프는 차세대 음악 유망주들의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이 캠프는 음악을 사랑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 캠프의 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여군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음악학생들을 위해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이 10명의 학생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였고, 서울남산RC의 김민 회원이 지난 8월 7일(월)에 KCO 음악레슨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 한양RC, '김포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 동아제약 비타민 100박스 전달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최경순)은 지난 8월 7일(월) 한양RC 전회장인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이 기부해 주신 동아제약 비타민 100상자를 김포시 양촌에 위치한 <김포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이규인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양수복 회원이 함께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동참하였으며, 비타민을 전달하여 외국인 이주 센터의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최경순 회장은 "소외계층들을 위한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로널차크마 나니 외국인 이주 대표는 "전달받은 비타민은 관내 이주노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 한성RC,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활동

한성로타리클럽(회장 손미선) 회원들은 지난 8월 24일(목)에 손미선 회장과 소재선 5지역 대표를 비롯, 9명의 회원과 한성 장학생으로 선정된 안혜영 학생과 함께 서울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한성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오전 10시부터 급식봉사 오티를 하고, 배식 파트를 맡아서 2000명의 어르신께 음식을 배식하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배식을 끝내고 뒷정리 후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 | 서울문화RC, 광양고 인터랙트클럽에 장학금 수여



서울문화로타리클럽(회장 김민테)은 8월 23일(수) 오전 11시에 광양고 교장실에서 광양고 인터랙트 임원 2명에 대한 2017년도 2학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문화RC를 대표하여 이종원 전총재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2학년에 재학중인 이익재, 강동수 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광양고 측에서는 김병혁 교장과 이난희 인터랙트 지도교사, 그리고 서울문화RC에서는 장학금을 출연한 김경일 인터랙트 단장이 배석하였다.

## | 서울무악RC 이무헌 전회장, 몽골 후레대학교에 장학금 2만달러 기부

서울무악RC 이무헌 전회장은 지난 8월 8일 몽골 후레대학교 세미나룸에서 정순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무헌, 서정옥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몽골 후레대학교는 2002년에 몽골의 기독교



교 선교를 위해 설립한 몽골 최초의 ICT 중심대학이며 2015년 몽골의 대학평가에서 120여개 대학 중 TOP TEN에 진입할 정도로 작지만 탄탄한 대학이다. 또한 2012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단체부문 선교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1년에 총장에 취임한 정순훈 서울무악RC 회원은 박사급 기독교학자 만명 양성을 본 대학의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1만불을 기증하는 1004명의 천사를 초빙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에 이무헌 로타리안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미화 2만달러를 기증하여 부인 서정옥 여사와 함께 이날 후레대학교 26번째와 27번째의 천사가 된 것이다. 후레대학교에서는 두 천사가 기증한 장학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그 이자만으로 몽골 고등학교 졸업생 중 전국 수능 성적 10% 범위내에 진입한 우수한 학생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로타리 정신을 몸소 실천한 이무헌 로타리안 부부 천사의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 서울RC, 자매클럽인 오사카RC 로타랙트 회원 4명 한국 초청 프로그램 실시

서울 로타리클럽(회장 한태숙)은 지난 30여년간 자매 클럽을 맺고 있는 일본 오사카 로타리클럽의 로타랙트클럽 회원 4명을 초청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년도에는 서울 로타리 클럽이 후원하는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 로타랙트클럽 회원 4명이 오사카를 방문하였고, 올해는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로서 한일 양 클럽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한일간의 문화 교류는 물론 차세대 로타랙트 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가구 박물관, 창경궁, 팔각정, 명동, 이대와 홍대를 둘러보고 장성현 전총재 자택에서 초청 만찬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복 체험, 흥대, 창경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 서울소통RC, 파주 쇠골농장에서 파주보육원생들과 함께 한 '소통' 봉사



지난 8월 11일 서울소통 로타리클럽(회장 주영대)의 금회기 첫 봉사가 있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 봉사라 하듯이 서울소통 로타리클럽은 탄생과 더불어 고양이가 걷듯 조심스레 봉사를 해왔으나 어린이가 된 지금은 스스로 마음을 잡는다 생각하며 큰 소리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금회기 첫 봉사는, 서울소통RC 회장직을 맡으신 주영대 회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소재 쇠골농장에서 행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파주보육원생들의 물놀이 체험이 있었는데 겨울, 눈썰매 체험장에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지요.

쇠골농장은 온가족이 사계절 내내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농장인데, 원생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체험이라 그랬던지 전염성 눈병에 걸려 저학년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고학년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원생들은 그곳에 함께 놀던 타그룹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며 경계하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지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존귀할진데 보육원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임 회장님께서 서울소통 로타리클럽을 대표해서 밤새 선물 보따리를 만드셨고, 회원들은 사진 찍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라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라고 말씀드리며 살짝 전달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허기진 원생들을 위한 컵라면과 무한리필 슬러시!

달콤함과 행복의 연속이 아닐까요. 비록 62명의 원생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어도 물놀이를 즐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법원읍에 들려 읍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봉사의 달인이신 주영대 회장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장애인 학교에서 마술봉사를 재능기부하고, 매년 고아원 아이들 불러서 썰매를 태우고 물놀이를 하며 아이들의 정신마저도 풍족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주신다고요.

또한 넓은 대지에는 갖은 야채와 배 밭을 운영하여 동네주민들께 일거리를 창출해주시고, 크고 달콤한 배는 수확하면 절반이상을 주변 어르신들과 복지단체에 묵묵히 봉사 하는 분이시지요. 또한 회장님은 30년전, 피노키오아저씨로 텔레비전에서 어린이들에게 명성을 휘날린 분이랍니다. 이런 분이 소통클럽의 회장직을 수행하시니 소통회원은 얼마나 행복 하던지요. 회원 규모가 큰 클럽은 아니지만 봉사가 있는 날이면 함께하고 혹 일이 있어 못 나온다면 금일봉을 전달하는데 봉사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소통회원과 직원들의 간식까지 챙겨서 보내주시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소통 로타리클럽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글. 서울소통RC 총무 **홍명진**